

탈-탈냉전기, 양안관계 변화에 대한 연구: ‘열린 결론’ 접근*

주장환(한신대학교 교수/ 유라시아 연구소 소장)

논문요약

이 글은 2025년부터 트럼프 정부 2기가 시작되는 시점에서, 탈-탈냉전기 중국과 대만간의 관계 변화를 분석하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해 ‘열린 접근’과 ‘동태적 양국관계 변화 분석모델’을 활용한 연구를 진행한다. 연구 결과, 이 시기 국제질서의 구조 및 문화적 발현성은 조건적이며 양립가능적이며, 역시 같은 차원에서 기회주의와 자유 활동을 특성으로 하는 상황 논리를 가진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 이 시기 내생적 조건의 양 주체는 구조 및 문화적 차원에서 상이한 발현적 속성과 상황 논리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즉 중국은 기회주의와 자유 활동적 상호 작용 유형을, 반면 대만은 냉전기와 유사한 경쟁적 상호작용 유형을 가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이 시기 양안관계의 시나리오는 상호작용의 결과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설정될 수 있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이 두 행위주체간의 상호작용 과정에서 중국이 채택한 유형 즉 기회주의로 수렴되는 경우이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대만이 채택한 상호 작용 유형인 경쟁으로 귀결되는 경우이다. 한편 이 두 시나리오 모두 현상 변경의 가능성을 높이며, 전자가 후자에 비해 무력을 동반한 급격한 변화의 가능성은 낮다고 할 수 있다.

주제어: 탈-탈냉전기, 양안관계, 변화, 열린 결론 접근, 동태적 양국관계 변화 분석모델

* 이 논문은 2021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21S1A5C2A01090085).

I. 서론

이 글은 2025년 1월 미국의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시작하는 시점에서, 탈-탈냉전기(Post-post-cold war) 양안(兩岸) 즉 중국과 대만간의 관계 변화에 대해 분석하고자 기획되었다. 주지하다시피 양안관계는 한반도의 남북관계와 더불어 세계적으로 아직까지 남아있는 대표적인 냉전의 유산이다. 또 분쟁 발발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되는 사례이다. 특히 양안관계는 최근 들어 그 현상 변경의 가능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일례로 바이든 행정부 시기에는 대만이 제2의 우크라이나가 될 것이라는 우려 섞인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¹⁾ 또 현재 트럼프 2기 행정부 시기에도 대표적인 현상 변경 가능 지역으로 손꼽히고 있다.²⁾

이 글은 ‘열린 결론’이라 명명할 수 있는 접근을 통해 이 문제를 탐구하고자 한다. 이 접근은 기본적으로 세 가지 입장과 논점에 근거한다. 첫째, 논리나 실증적 예측을 근거로 결론을 단아두지 않는다. 이 의미는 사회 과학의 메타 이론적인 과학 철학의 용어를 빌린다면 실재론적 존재론과 절대주의적 인식론에 기반한 논리실증주의를 비판한다는 것이다. 동시에 비실재론적 존재론과 상대주의적 인식론을 주요 특징으로 하는 구성주의 등의 입장에 찬성하는 것도 아니다. 이 접근은 자연과학과 사회과학의 본질적 차이에 대한 인정(이원론), 사회 현상의 실체가 존재한다는 입장(실재론) 그리고 사회적 인식의 상대성에 대한 인정(인식론)을 등을 그 특징으로 하는 ‘비판적 실재론(critical realism)’이라는 메타 이론에 근거한다.³⁾

둘째, 현실의 사회세계는 기본적으로 자연과학과 같이 실험 등의 방법으로

1) Khrestin, I., “The Russo-Ukrainian War: Implications for Taiwan.” *Global Taiwan Brief*, Vol 8, Issue 13, June 28 2023, <https://globaltaiwan.org/2023/06/taiwanese-perspectives-on-the-russian-invasion-of-ukraine-and-its-implications/>(검색일: 2024년 2월 11일).

2) Casado, J. A. R., “Trump 2.0 and the Future of the Taiwan Strait Conflict.” *The Diplomat*, November 18, 2024, <https://thediplomat.com/2024/11/trumps-return-and-the-future-of-the-taiwan-strait-conflict/>(검색일: 2024년 2월 11일).

3) 비판적 실재론에 대한 과학철학에서의 주요 특징과 관련한 보다 상세한 사항은 이기홍, “비판적 실재론이 상기시키는 사회과학의 가능성.” 『담론 21』 제24권 1호, 2021, pp. 73~121을 참조 바람.

확인할 수 없는 개방체계이므로, 여기에서의 인과법칙은 폐쇄체계인 자연세계에서 통용되는 필연성을 전제하지 않는다. 대신 사회세계에서의 인과성은 발현성(emergence) 혹은 경향성(tendency) 등과 동의어로 이해된다. 즉 사회 현상에서의 인과법칙을 사물의 발생적 메커니즘의 경향으로 분석 및 이해한다. 따라서 열린 접근은 과학적 분석의 목적은 이 메커니즘을 설명하고 이해하는 데 있지, 그 결과를 예측하는 데 있지 않다는 입장을 지지한다.⁴⁾

셋째, 구조와 행위자간의 상보성(complementarity)과 독립성(independence)에 착목한다. 즉 사회 현상은 구조나 행위자 한 측면만으로는 초래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이 점에 대한 승인은 사회 현상에 대한 분석 과정에서 구조와 사람은 서로 대체되거나 환원될 없는 독립적인 인과력을 가진 실재라는 결론에 이르게 한다. 동시에 양 측면 모두에 대한 인과적 작인에 대한 분석의 필요성에 정당성을 부여한다.⁵⁾ 따라서 열린 결론이라는 의미는 미래에 대한 예측이 아니라 과거 현상에 대한 설명의 축적을 통해 그 동학을 규명하고, 미래의 결과는 특히 행위자의 선택에 따라 가변적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글은 2장에서 이 열린 결론 접근을 국제관계에 적용한 이론적 성과를 활용하여 분석틀을 설계한다. 구체적으로 비판적 실재론에 기반한 형태발생모델(Morphogenetic model)을 국제관계에 적용한 ‘동태적 양국관계 변화 분석 모델’이 바로 그것이다. 3장에서는 2장에서 설계 및 제시된 분석틀을 활용하여 냉전기와 탈 냉전기와의 비교와 동시에 탈-탈 냉전기 양안관계 변화를 분석한다. 동시에 분석 결과에 기반한 시나리오를 제시한다. 특히 이 시나리오 제시는 서두에서 밝힌 열린 결론 접근 중의 주요 특징 중 하나이다. 즉 동일한 구조적 제약 하에서도 행위자의 선택에 따라 복수의 시나리오가 도출될 수 있다는 논리에 기반하고 있다.

한편 이 글에서는 트럼프 2기 정부 시기는 ‘탈-탈 냉전’기에 속한다고 규정한다. 이 탈-탈 냉전기라는 개념을 이 글이 쓰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먼저, 이와 대응되어 사용되어지는 신냉전, 초냉전, 다극질서, 다질서 등 개념들의 불완전함 때문이다.⁶⁾ 즉 이 개념들은 정의상 현상이나 사물이 지닌 보편적 속성을

4) Bhaskar, R., *A Realist Theory of Science*, London: Verso, 1997, pp. 229~238.

5) Bhaskar, R., *The Possibility of Naturalism*, London: Routledge, 1998, pp. 25~35.

6) 각각의 개념들에 대한 문제의식은 장시영·남궁영, “도전받는 미국의 헤게모니: 중·러의 도전과

반영해야 한다고 했을 때, 그 정도에서 매우 불충분하다는 의미이다. 물론 모든 개념은 제출과 동시에 본질적으로 논쟁적이라는 점을 감안한다할지라도 상기 개념들은 기본 요건을 갖추기보다 곧바로 향후 변화의 방향을 주관적으로 제시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점에서 과학적 개념이라고 보기에 많은 한계가 있다.⁷⁾

다음으로, 그림에도 불구하고 탈 냉전기와 질적으로 분명히 구분되는 변화들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새로운 시기 구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예로 탈 냉전기의 미국 중심의 '일극(uni polar)'체제가 붕괴되었다.⁸⁾ 또 이는 객관뿐만 아니라 주관적으로도 확인되고 있다. 객관적으로 미국의 2008년 자국 발 금융위기를 기점으로 한 역진 불가능한 수준의 경제적 퇴조, 2020년 아프가니스탄 철수 그리고 2021년 발발 이후 현재까지 지속중인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2024년에 발발한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 등은 일극(미국) 체제의 붕괴의 대표적인 사례들이다. 또 주관적으로 미국의 전략 수정을 들 수 있다. 이 시기에 미국은 탈 냉전기와는 질적으로 다른 대 중국 견제와 적대시 정책을 기본으로 하는 수정주의적 패권유지 전략을 강화시켜왔다. 물론 일방주의와 다자주의라는 그 방식의 차이는 있었지만, 이 기조는 집권 정당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1기에서 그리고 바이든 정부로까지 이어졌다.⁹⁾ 따라서 상술한 이유들을 근거로 이 글에서는 현 시기를 '탈-탈냉전기'라고 명명한다. 즉 이 시기는 탈냉전기와는 질적으로 다르다. 그러나 아직 초기여서 그 결과태를 예단할 수 없다.

진영형성에 따른 신냉전 가능성.” 『세계지역연구논총』 제41권 제1호, 2023, pp. 1~53; 제성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의미와 한반도: 세계질서, 안보딜레마, 정체성.” 『국제지역연구』 제38권 제4호, 2023, pp. 679~712; 차태서, “탈단극적 계기로의 진입? 포스트-우크라이나 전쟁 시대 세계질서의 대전환 읽기.” 『국제·지역연구』 제32권 제1호, 2023, pp. 1~39 등을 참조 바람.

7) 과학적 개념의 본질적 속성에 관한 보다 상세한 논의는 김용진, “사회과학적 일반화에 있어서 연구사례의 일탈성.” 『21세기 정치학회보』 제26집 제4호, 2023, pp. 52~54; 김민혁, “개념의 의미 지평에 대한 다원적 접근법.” 『개념과 소통』 제33호, 2024, pp. 279~315. 등을 참조 바람.

8) Westad, D. A., “A Multipolar World Order: U.S.-China Relations Under a Second Trump Administration.” *Georgetown Journal of International Affairs*, February 3, 2025, <https://gjia.georgetown.edu/2025/02/03/a-multipolar-world-order-u-s-china-relations-under-a-second-trump-administration/>(검색일: 2025. 02.19.).

9) 공민석, “트럼프의 이단성과 바이든의 정상성?: 대중 전략의 연속성과 단절에 대한 평가.” 『국가안보와 전략』 제22권 제1호, 2022, pp. 1~53.

동시에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불안전하고, 또 주관이 객관을 재단하는 상대주의에 입각한 개념을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보다 객관적이고 가치중립적인 개념인 탈-탈 냉전기라고 명명하는 것이 현재 시점에서는 합리적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결론에서는 이 글의 분석 결과에 대한 정리를 진행한다. 더불어 학술 및 정책 함의를 도출하고, 이에 기반한 향후 연구의 과제를 정식화한다.

II. 분석틀: 동태적 양국관계 분석 모델

이 글의 분석틀은 과학철학에 있어서는 상술했다시피 비판적 실재론, 그리고 사회변동모델 중 형태발생론에 기초하고 있다. 비판적 실재론은 과학철학의 주요 논점 중, 존재론의 차원에서 객관적 실재의 존재는 인정하지만 인식론적으로 상대주의적인 입장을 받아들인다. 즉 존재론의 차원에서 존재의 객관적 실체를 인정하지 않음으로 인해 극단적 낙관 혹은 회의주의로 빠지는 경향에 대해 비판한다. 동시에 인식론의 차원에서는 실재론 중 실증주의가 가지는 일원론적 연역 편향성을 극복하고자 한다. 이 입장의 핵심 요지는 과학의 대상인 객체는 현상에 부과된 인간의 구성물이 아니라 그 자체로 존재한다. 그러나 이에 대한 지식과 관점은 인간 활동의 산물로서도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다. 즉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실재에 대한 분석에서 인간의 불가피하고 적극적인 개입을 인정하는 것이다.¹⁰⁾

한편 형태발생론은 이 비판적 실재론에 기초하여 거시적 구조 내에서 이루어지는 미시적 행위의 기제와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 고안되었다.¹¹⁾ 형태발생론은 실제 존재하는 총화된 '실재'가 인과적 메카니즘을 통해 규명될 수 있다는

10) 이 비판적 실재론의 논리와 구체적인 내용과 관련해서는 Bhaskar, R., *Enlightened Common Sense: The Philosophy of Critical Realism*, London: Routledge, 2016; Bhaskar, R., *The Order of Natural Necessity: A Kind of Introduction to Critical Realism*, London: Routledge, 2017 등을 참조 바람.

11) Carter, B., and New, C., *Making Realism Work, Realist Social Theory and Empirical Research*, London: Routledge, 2004.

입장에 근거하고 있다. 이 입장은 구조의 '물화(reification)'나 행위의 '환원주의(reductionism)' 그리고 앤서니 기든스(Anthony Giddens)류의 구조화 이론에서의 순환론적 오류를 방지하고, 구조를 적확하게 이해하고자 하는 시도이다. 동시에 '분석적 이원론'이라는 방법론을 적용하고 있다. 즉 시간적 선차성의 도입, 거시 구조와 미시 행위적 변수 분리 및 연계, 물질적 구조와 이념적 문화의 구분 등을 기초로 하여 사회의 연속과 변화 메카니즘에 대한 설명과 이해를 시도한다. 또 구조와 행위가 시기적으로 구분되는 구성 요소들 사이의 상호작용과 그 관계에 기반하여 나타나는 속성인 '발현성(emergent property)'을 토대로 사회적 실재가 '계층화(stratification)'되어 있어서 구조와 행위자의 발현적 속성이 각자로 환원된다는 구조와 행위의 존재론적 이원론에 근거한다.¹²⁾

이 같은 형태발생론을 바탕으로 이 글의 분석틀은 설계된다. 부연하자면 형태발생론은 주로 국내 사회변동에 대한 설명을 위해 고안되었다. 반면 이글의 분석틀인 동태적 양국관계 분석 모델은 이를 국제관계로 확장하고 있다. 우선 이 모델은 형태발생론에 기반하고 있다. 그러나 이 모델은 주요 분석 대상인 '사회'에서 '국제' 그중에서도 '양국관계'로 치환한다. 또 '동태적'이라는 의미는 이 모델의 분석 결과는 하나의 열린 결론으로써의 시나리오 산출의 근거가 되고, 행위자의 능동적이고 합목적적인 행위에 따라 그 결과는 변화 가능하다는 의미이다.

다음으로, 형태발생론에서의 구조 및 문화적 조건화를 '제도적 조건'으로 상정한다. 이는 구체적인 양국의 상호작용 즉 관계 형성의 초기 조건이다. 또 이 제도적 조건은 '외생'과 '내생'조건으로 세분화된다. 외생적 조건은 세계질서를, 내생적 조건의 구체적인 양국관계의 속성을 의미하고, 전자가 후자에 영향을 미친다. 외생적 조건의 속성은 당시 패권세력과 도전세력의 관계의 속성과 직결되고, 내생적 조건의 속성은 구조, 문화의 발현성의 조합에 대응되는 상황 논리의 속성과 직결된다.(<표 1> 참조)

특히 주의할 점은 이 모델의 분석의 대상은 양국관계이므로, 사실상 행위자는 두 국가이며, 각각의 기득권(집권당 내지 최고 지도자)의 상황논리와 기회비용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만약 분석의 대상이 지역질서 내지 양국을 넘는 국가

12) Archer, M., *Realist Social Theory: The Morphogenetic Approach*,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5, pp. 33~66.

간 관계라면 이 제도적 조건 중 내생적 조건의 행위자는 그 수에 따라 비례하여 증가한다. 또 이 내생적 조건의 구성 요소에는 두 국가 간의 관계에 영향을 주는 세계질서의 하위에 속하는 지역질서도 역시도 내생적 조건에 포함될 수 있다.

〈표 1〉 구조, 문화적 차원에서의 발현적 속성, 상황 논리의 종류

발현적 속성		상황 논리	
구조	문화	구조	문화
필요	양립 가능	보호	보호
	양립 불가능	타협	혼합수정
조건	양립 가능	기회주의	자유 활동
	양립 불가능	제거	선택 강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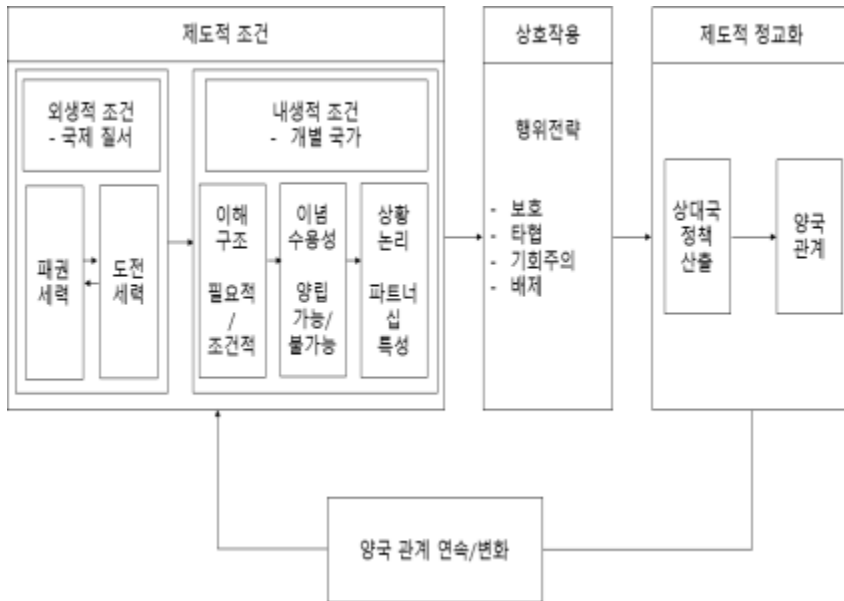
다음으로, 그 다음 단계는 제도적 조건하의 각 행위자들의 상호작용과 그 인 해 형성되는 행위전략이다. 이 상호작용은 행위자간의 물질적으로 협상 지위(종합국력, 관계의 특수 상황 등)와 문화적 차원에서의 교섭 강도(개별 행위자 내의 이념 및 의견의 일체성 등)에 따라 진행된다. 그 결과에 따라 상호작용의 유형과 행위전략의 유형이 결정된다. 만약 각 개별 행위자의 문화와 구조적 차원에서의 상황논리가 극명하게 대비되는 경우, 협상 지위와 교섭 강도의 차이에 따라 절충 내지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이다.

〈표 2〉 구조, 문화적 차원에서의 상황 논리, 상호작용, 행위전략의 종류

상황 논리		상호작용 유형	행위 전략
구조	문화		
보호	보호	방어적	보호
타협	혼합수정	양보적	타협
기회주의	자유 활동	기회주의적	기회주의
제거	선택 강요	경쟁적	배제

즉 <표 2>와 같이, 방어, 양보, 기회주의 그리고 경쟁 등 모두 4가지 유형의 상호작용의 유형과 보호, 타협, 기회주의, 배제 등의 각각의 상호 작용 유형에 대응되는 행위전략이 존재한다. 즉 상호작용의 유형이 방어적일 경우, 각 행위자들은 보호를, 양보적일 경우 타협을, 기회주의일 경우 기회주의를, 경쟁일 경우 배제의 전략을 선택한다고 논리적으로 가정한다.

<그림 1> 동태적 양국관계 분석모델¹³⁾



마지막으로, 제도적 정교화는 각 행위주체의 행위전략 간의 상호작용의 결과인 새로운 주기의 제도적 조건에 초기조건을 형성한다. 이를 위해 각 행위주체들은 정책과 제도 변화 등의 행위를 조직한다. 한편 이 주기는 순환되고, 이전 주기가 다음 주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논리적으로 기

13) 이와 유사한 모델을 활용해서 국제관계의 변화를 분석한 최신 성과들은 주장환 외, 『동북아안보구조의 변화와 중국-한반도 관계: 시나리오 분석 및 한국의 대응방안』,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8; 주장환, “북중관계 동화에 관한 연구: ‘구조’와 ‘행위’의 이중주인가 독주인가?,” 『국가안보와 전략』 제22권 제3호, 2022, pp. 1~30 등을 들 수 있음.

회주의와 배제의 행위전략이 제도적으로 정교화되는 경우 현상 변경이, 보호와 타협의 행위전략이 정교화되는 경우 현상 유지의 가능성이 높다. <그림 1>은 이상의 논의를 도식화한 것이다.

Ⅲ. 탈-탈 냉전기, 양안관계 변화: 동태적 양국관계 분석 모델의 적용

여기에서는 탈-탈 냉전기 양안관계를 동태적 양국관계 분석모델을 활용하여, 냉전기와 탈냉전기와 비교하면서 분석한다. <그림 1>에 따라 각 시기별로 외생적 조건, 내생적 조건, 상호작용 그리고 제도적 정교화의 순으로 분석을 진행한다.

1. 냉전기 양안관계

이 냉전기의 외생적 조건 즉 국제질서의 주요 특징은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양대 진영의 명확한 구분과 미국과 구 소련이라는 양극 질서에 기초한 진영 간 자체 고립과 경쟁이다. 따라서 이 시기 국제질서는 미국과 구 소련 양극(bipolar)체제의 안정화로 인해 안정성이 높았으며, 모두 핵 무기를 보유함으로써 두 체제 간 직접적인 무력 충돌의 가능성은 낮아졌다. 경제와 안보와 작동 기제는 각 진영의 집단방위 기구인 북대서양 조약기구와 바르샤바 조약기구 등을 통해 작동됐다. 진영 내 국가들은 상호동맹을 맺어 그 결속을 강화했다. 또 지정학적 충돌과 대립이 중심은 유럽이었으며, 양대 진영은 긴장 속에서 균형을 유지하는 ‘공포의 균형’상태였다.¹⁴⁾ 따라서 기본적으로 상호 ‘배제’라는 행위전략이 작동되는 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이 같은 외생적 조건의 영향을 받는 내생적 조건은 행위자 차원이기에 이 글에서는 중국과 대만 등 두 개의 주체가 이해 당사자이다. 이들 주체 내부

14) 이와 같은 특징에 관한 보다 상세한 사항은 반길주, “냉전과 신냉전 역학비교: 미중 패권경쟁의 내재적 역학에 대한 고찰을 중심으로.” 『국가안보와 전략』 제21권 제1호, 2021, pp. 1~27을 참조 바람.

의 기득권(연합)의 상태와 기회비용에 따라 그 특성이 결정됐다. 이 시기 중국과 대만의 상대방에 대한 정책 태도는 유사하다. 즉 상호 불인정과 적대 그리고 무력 제압이 주된 기조였다. 이 기조는 1971년 미중 수교와 대만의 국제연합(UN)에서의 퇴출, 1979년 미중 수교 등 대외 관계와 1976년 마오쩌둥(毛澤東)사망, 1988년 장제스(蔣介石)-장징궈(蔣經國) 부자 세습 체제의 종결 등 대내적 요인이 상호작용하면서 다소간의 변화가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냉전기 내내 유지되었다.¹⁵⁾ 한편 이 시기 중국과 대만의 대표적인 기득권 연합이라고 할 수 있는 공산당과 국민당은 1921년부터 각각 2차례의 합작과 내전의 연장선 하에서 상대방을 인식했고, 상호적대와 궤멸을 체제 유지의 주요 근거로 삼았다. 물론 상술한 대내외 요인으로 인해 정책 투사의 강도가 일시적으로 변하기는 했으나, 전반적으로 정책 전환을 이끌 정도의 기회비용의 변화 요인을 발생하지 않았다. 그 결과 이 시기인 1949년, 1954년과 1958년 세 차례의 무력 분쟁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의 중국과 대만 모두 구조 및 문화적으로 발현적 속성은 조건적이며 양립불가능하며 이에 대응한 제거와 선택강요를 상황 논리를 수용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들 간의 상호작용은 상호 경쟁적이고, 이에 대응되게 상호 배제적 행위전략을 채택하게 되었다.(〈표 3〉 참조) 이 유형의 행위전략의 가장 대표적인 예는 바로, 1971년 유엔 총회에서 중국과 대만이 국제사회에서 동시 아닌 선택적으로 인정받은 것이었다. 즉 당시 유엔 총회에서는 이전과는 완전히 상반되게 중화인민공화국을 중국의 유일한 합법 정부로 승인하고, 중화민국(대만)의 지위를 박탈했다. 따라서 물론 1970년대 데탕트로 인해 다소간의 변화는 있었지만,¹⁶⁾ 냉전시기에 중국과 대만 관계는 상대방을 인정하지 않고, 경쟁하며 상호 배제적인 관계가 주를 이루었다.

15) 김옥준, “마오쩌둥 시기의 통일 정책: ‘하나의 중국’ 원칙 확립과 정책 변화.” 『사회과학연구』 제21권 제4호, 2010, pp. 117~136.

16) 이 같은 변화와 관련된 보다 상세한 사항은 쉬진위, “양안은 화해할 수 있을까?: 중국공과 대만 발전의 갈등과 대화.” 『역사비평』 제114호, 2016, pp. 166~168을 참조 바람.

〈표 3〉 냉전기 양안관계 발현적 속성, 상황논리, 상호작용 유형 그리고 행위전략

발현적 속성/상황 논리		상호작용 유형	행위 전략
구조	문화		
필요/보호	양립가능/보호	방어적	보호
필요/타협	양립불가능/혼합수정	양보적	타협
조건/기회주의	양립가능/자유 활동	기회주의적	기회주의
조건/제거	양립불가능/선택 강요	경쟁적	배제

2. 탈 냉전기 양안관계

탈 냉전기, 이 양안관계에서 일정한 질적 변화가 발생했다. 그 과정은 다음과 같다. 이 시기 양안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외생적 조건인 국제질서는 구소련과 동구권 등 현실사회주의의 붕괴로부터 그 성격이 규정되었다. 즉 1991년 구소련의 붕괴로 말미암아 국제질서는 미국 중심의 일극체제로 변화되었다.¹⁷⁾ 이 시기 국제질서의 핵심적 특징은 일극체제의 유일무이한 패권국인 미국의 전일적인 영향력의 확대와 투사였다. 구소련 이후의 러시아, 중국 등 강대국들은 모두 미국과의 군사와 안보 영역에서의 대립과 경쟁을 회피했다. 대신 경제와 통상 분야를 중심으로 미국 중심의 세계화 네트워크 편입을 시도했다. 사실상 미국의 표준이 세계의 표준이 되었으며, 세계가 긴장보다는 협력을 도모하는 시대로 변모했다. 이로 인해 냉전 시기의 진영은 와해되었고, 이전 자유주의 진영 국가들과 역시 이전 사회주의 진영의 국가들은 수교를 진행하고, 다차원적인 협력관계가 형성됐다. 이런 맥락에서 이 시기를 ‘탈(post) 냉전기’라고 명명하는 것이다.¹⁸⁾ 따라서 기본적으로 상호 ‘타협’이라는 행위전략이 작동되는 외재적 조건이 형성됐다. 즉 구조 및 문화적으로 필요와 양립불가능한 발현적 속성과 타협과 혼합 수정적 상황 논리 하에서 양보적 상호작용이 진행되는 상황인 것이다.

17) 이호재, “21세기 동북아 국제질서와 새로운 세력균형의 모색-동북아 5개국 체제.” 『국제정치논총』 제39권 제3호, 2005, pp. 8~12.

18) 박영준, “국제안보질서의 동요와 한미일 안보협력의 방향.” 『국가전략』 제30권 제3호, 2024, pp. 8~13.

이 같은 외재적 조건은 중국과 대만의 선택에 영향을 미쳤다. 이 시기 중국과 대만은 냉전기와 달라진 외재적 조건의 특성을 비교적 적극적으로 받아들였다고 평가된다. 중국은 무력 통일 노선보다는 ‘하나의 국가이지만 두 체제를 인정하는’ 일국양제(一国两制)를 통일 방안으로 제시하면서, ‘조건부’ 평화 제스처를 취했다. 이런 노선 전환은 이 시기 중국이 경제 성장을 위해 필요한 국제사회로부터의 기술 및 자본의 확보 더 나아가 국제사회로의 완전한 편입을 위한 대외개방 정책과 그 궤를 같이 한다.¹⁹⁾ 즉 이런 노선이 당시 중국의 기득권 연합 즉 공산당의 이해와 일치했고, 또 이런 추세를 받아들이는 것이 거부하는 것보다 기회비용이 높았던 것이다. 한편 대만 역시 이 시기 정치와 이념이 아닌 경제와 사회적 차원에서 양안관계를 사고하기 시작했다. 즉 이전의 3불 정책을 점진적 단계적 통일 노선이 대체했다. 대표적인 것인 1992년의 중국과 대만은 하나의 중국이라는 원칙에는 동의하지만, 그 해석은 다르게 한다는 이른바 ‘92 공동인식’의 채택이다. 물론 이 기간 중에 1895년 4월부터 약 2달여간 존재했던 ‘대만 공화국(The Taiwan Republic)’의 역사적 정통성을 인정하는 민진당이 집권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 정치세력 역시도 기본적으로는 기능적 현상유지론 하에서 국민당보다 상대적으로 급진적인 ‘대만 본토화’를 추진하는 정도의 스탠스를 취했다. 대표적으로 2000년 천수이벤(陳水扁) 민진당 정부가 최초로 집권했을 때 독립선포, 국호 변경, 양국론 헌법 삼입 그리고 독립 문제 국민투표 회부를 하지 않고, 국가통일강령과 국가통일위원회를 폐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²⁰⁾ 이는 대만의 당시 기득권 역시 ‘불통불독(不統不獨)’방침 유지의 기회비용이 더욱 높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상황에서의 중국과 대만 모두 구조 및 문화적으로 발현적 속성은 필요적이며 양립불가능하며 이에 대응한 타협과 혼합수정의 상황 논리를 수용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들 간의 상호작용은 상호 양보적이고, 이에 대응되게 상호 타협적 행위전략을 채택하게 되었다. 이 유형의 행위전략의 가장 대표적인 결과는 양안 간 경제적 교류의 급증이며 2002년 이후부터 지속되는 대만의 최대 수출국으로서의 중국의 지위이다. 물론 이 시기에 1995년의 제4차 양안해협 위기,

19) 문흥호, “대만문제와 양안관계의 대내외적 환경: 변화와 지속.” 『동아연구』 제53집, 2007, pp. 220~231.

20) 시진위, 양안은 화해할 수 있을까?, pp. 170~175.

2004년 대만의 독립 추진 가시화, 그리고 이에 대한 맞대응으로써 독립 시도 가시화시 무력 동원 가능성을 명문화한 중국의 ‘반국가분열법’ 제정 등의 갈등이 부분적으로 발생했다. 그러나 이른바 정경분리에 입각한 양안 관계의 진전은 냉전기와는 비교할 수 없게 이뤄졌다. 따라서 이 탈냉전시기의 중국과 대만 관계는 기본적으로 상호 양보적인 상호 작용 하에서 타협적 행위전략이 주를 이뤘다고 할 수 있다. (<표 4> 참조)

〈표 4〉 탈냉전기 양안관계발현적 속성, 상황논리, 상호작용 유형 그리고 행위전략

발현적 속성/상황 논리		상호작용 유형	행위 전략
구조	문화		
필요/보호	양립가능/보호	방어적	보호
필요/타협	양립불가능/혼합수정	양보적	타협
조건/기회주의	양립가능/자유 활동	기회주의적	기회주의
조건/제거	양립불가능/선택 강요	경쟁적	배제

3. 탈-탈 냉전기 양안관계

한편, 탈-탈 냉전기 들어서서 이 양안관계의 변화는 다음과 같은 조건하에서 진행되었다. 먼저 외재적 조건이다. 그 주요한 특징은 첫째, 전제로써 탈 냉전기가 종료되었다는 것이다. 물론 사회주의권의 몰락이라는 냉전기의 예처럼 분명한 사건이 그 분기점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 질적 변화에 대해 전제가 중요한 이유는 동일시기 즉 탈냉전기 중의 하나의 과도기 내지 일시적인 혼란기로 본다면, 새로운 질서에 대한 분석은 근본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새로운 질서가 완전히 구축되지 않았다할 지라도 이전 시기 즉 탈냉전기가 종료되었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객관적 분석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²¹⁾

21) 기실 이런 혼란은 탈-탈냉전기의 시작 시점에 대한 여러 다른 견해에 의해 증폭되는 경향이 존재한다. 이 시작 시점에 대한 여러 다양한 견해와 관련해서는 O’Keefe, M., “The Militarization of China in the Pacific.” *Security Challenges*, Vol. 16, No. 1, 2020,

둘째, 이 시기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서론에서도 상술했듯이, 미국 중심의 ‘일극 질서’가 주객관적으로 무너졌다는 데에 있다. 객관적으로 목도되고 있는 현실은 미국의 주도권이 탈 냉전기와는 질적으로 다르게 약화되었다는 것이다. 특히 경제적으로 2008년 미국 발 금융위기를 기점으로 이미 이전 시기로 돌아갈 수 없는 경제적 퇴조기를 맞이하고 있다. 외교안보적으로도 2020년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철수, 2021년 이후 현재도 계속되고 있는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2024년 발발한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 그리고 연이은 이스라엘의 이란 등 일부 이슬람 국가와 세력들에 대한 공격 등을 통해서 경제 및 외교안보적 차원에서 미국의 퇴조가 현실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즉 질적으로 탈 냉전기와는 달리 미국의 세계질서에 대한 통제력의 약화가 현상화되었다.

또 기실 더 중요한 것은 주관적인 측면이다. 미국은 이미 2010년경 오바마 정부 시기부터 ‘아시아로의 회귀(pivot to asia)’ 정책을 발표하면서, 대 중국 적대 정책을 점차 노골화해오고 있다. 이는 특정 정당이 아닌 미국 전체의 전반적인 인식이라는 것이 그 이후 트럼프 1기 정부에서도 더욱 강력한 대 중국 견제 정책으로 증명되었다. 트럼프 1기 정부에서는 그동안 유보해오던 중국에 대한 입장을 미국의 힘과 이익에 도전하며 자유롭고 공정한 경제를 훼손하는 ‘수정주의 세력’이라고 규정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중국 경제의 성장이 하루 이틀의 일 이 아니기에 미국이 중국을 이 시기부터 의도적으로 적대시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이후 바이든 정부에서도 이 기조는 변함없이 유지 강화되었다. 대표적으로 대 중국 적대시 및 봉쇄의 의도가 분명한 2021년부터 구체화된 ‘인도태평양(Indo-Pacific)’ 전략을 들 수 있다.²²⁾ 또 2025년 출범한 트럼프 2기 미국 행정부는 내각 인선에서도 대 중국 강경 성향의 인물들이 다수 포함되었고, 정

pp. 94~112; Tsui, S., et al., “Toward Delinking: An Alternative Chinese Path Amid the New Cold War.” *An Independent Socialist Magazine*, Vol. 72, No. 5, 2020, pp. 15~31; Davis, B., *Superpower Showdown: How the Battle Between Trump and Xi Threatens a New Cold War*, New York: Harper Business, 2020 등을 참조 바람.

22) White House, *National Security Strategy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2017)*, Washington D.C.: White House, 2017, pp. 1~48; “2020 Democratic Party Platform.” *The Democratic Party*, August 17, 2020, pp. 13~14, https://ballotpedia.org/The_Democratic_Party_Platform,_2020(검색일: 2024.02.11.); 류동원, “21세기 미중 경쟁에 대한 신냉전 논쟁과 쟁점 연구.” 『중국지역연구』 제9권 제2호, 2022, pp. 333~362.

책적으로도 무역을 중심으로 전방위적으로 대중국 강경 기조가 강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전망된다.²³⁾

따라서 탈-탈냉전기의 가장 큰 특징은 일극 질서가 해체된 이후에도 미국이 계속 헤게모니를 쥐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중국은 그 대표적인 가상이 아닌 실제적인 도전국이고, EU나 러시아 등도 미국의 입장에서 도전국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미국이 자국의 약화된 국력을 기존 강대국들을 도전국으로 규정하고 견제 및 적대시하면서 만회하려는 것이 이 시기의 가장 큰 특징이다.

셋째, 현재 시기는 새로운 질서 형성의 초기 단계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 때문에 초래된 주요한 특징이 ‘불확정성’이 아니라 ‘원심력이 구심력보다 더 크게 작동하는 질서 내 장력(張力)의 변화’이다. 기실 불확정적이라는 말은 어떤 질서 형성의 초기에는 모두 통용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탈-탈 냉전기의 특성을 개념화하는 데에는 그리 적절한 개념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대신 탈-탈 냉전기 초기를 보다 정확하게 규정할 수 있는 개념은 일극의 해체로 인해 체제 내 장력의 변화 즉 구심력보다 강력한 원심력의 작동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이 특징 하에서 세계의 각 국가는 자국의 이익 극대화를 위한 행동이 매우 적나라하게 현상화된다. 따라서 여러 다른 성격의 국가 간 ‘그룹핑(grouping)’과 각 국가들은 여러 다른 성격의 그룹들에 중첩과 중복적인 멤버십을 가지며, 각 국가들은 이를 통해 이익의 극대화를 꾀하면서 필요하다면 현상 변경을 위해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인다.²⁴⁾ 이렇게 봤을 때, 이 시기 외생적 조건의 구조 및 문화적 발현성은 조건적이며 양립가능적이다. 또 이에 따른 상황 논리는 구조 및 문화적 차원에서 기회주의와 자유 활동이다.

다음으로 내생적 조건이다. 이 시기 중국은 일단 현 국제질서에서 가장 대표적인 강력한 도전국으로 ‘규정지어진’ 국가이다. 그러나 이전 시기와는 달리 이

23) 김예경, “트럼프 2기 미중 전략경쟁 전망과 한국의 대중국 정책 방향.” 『이슈와 논점』 제 2303호, 2024; 최우선, “트럼프 2기 미중관계 전망: 경제안보를 중심으로.” 『주요국제문제분석』 2024-46, 2025, pp. 9~12.

24) 이런 경향을 대표하는 개념으로는 ‘거래적 국가 25(Transactional 25)’가 있다. “How to survive a superpower split.” *Economist* 2023년 4월 11일, <https://www.economist.com/international/2023/04/11/how-to-survive-a-superpower-split>(검색일: 2024. 11. 07.).

외생적 조건이 초래한 환경에 수동적이 아니라 주동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예는 막대한 손해를 감수하면서도,²⁵⁾ 진행하고 있는 시진핑 집권 1기에서 3기까지의 외교 노선의 변화를 들 수 있다. 즉 2012년부터 2017년까지의 1기의 경우, 기본적으로 대외 환경을 ‘전략적 기회’로, 2017년부터 2022년까지의 2기의 경우, ‘전략적 기회와 도전이 공전’하는 것으로, 2022년부터의 3기인 경우, ‘전략적 위기’의 시기로 인식하고, 그 대응의 수위도 점차 공세적이고, 주도적으로 변화시켜왔다.²⁶⁾ 이밖에 발전 전략의 차원에서도 세계질서의 변화에 대한 적극적 대응의 일환으로 경제내순환론을 이론적 기반으로 하는 내수 중심으로 경제발전 전략을 변경하고, 군사력 강화를 의미하는 강군몽(強軍夢)을 제창하는 등 보다 적극적으로 이 변화된 국제질서의 흐름에 대응하고 있다. 동시에 시진핑의 3연임으로 대표되는 내부 정치 동학의 권위주의화가 심화되고 있다.²⁷⁾ 이 모든 변화들은 중국이 탈 냉전기 시기의 개혁·개방전략과 질적으로 다른 전략을 중심으로 다른 역사적 시기로 진입했다는 증거가 되기도 한다.²⁸⁾

한편 이 같은 행동들은 중국의 기득권연합인 공산당이 시진핑 집권과 함께 제기한 ‘중국의 꿈’ 실현을 위한 로드맵을 유지하는 것이 이 기회비용 차원에서 기존 노선을 변경하는 것보다 득이 많다고 평가한 결과라고도 할 수 있다. 따라서 중국은 외생 조건의 변화를 매우 주동적으로 받아들이고, 이에 따라 기회주의가 상호작용의 기본적인 유형이다.

대만은 2016년 이후 대만 독립을 선호하는 민진당이 2024년에도 집권당의 지위를 유지했다. 차이잉원(蔡英文)에 이어 라이칭더(賴清德)가 연속으로 민진당

25) 주로 경제적인 차원에서 손실을 많이 입었고, 대표적으로 2020년에 중국은 미국 경제규모의 76%였으나, 2023년에는 64%로 떨어졌다. “악몽이 된 중국몽... 중 경제력, 미 추월은 커녕 더 벌어졌다.” 『조선일보』, 2024년 01월 27일, https://www.chosun.com/economy/economy_general/2024/01/27/OIT4VE65NNGQBGEYBWADM2YX5E/(검색일: 2024년 11월 7일).

26) 신중호, “시진핑 3기 중국 대외정책의 지속과 변화: ‘중국특색 대국외교’를 중심으로.” 『중국사 회과학논총』 제6권 제2호, 2024, pp. 27~63.

27) 주장환·신지연, “중국 포스트 개혁개방 정책의 이론적 기초: 경제내순환론을 중심으로.” 『국제지역연구』 제25권 제1호, 2021, pp. 171~190; 공민석, “트럼프의 이단성과 바이든의 정상성?,” pp. 1~53.

28) 따라서 시진핑 집권과 함께 소위 ‘탈-개혁·개방’ 시기로 진입했다는 주장이 존재한다. 이에 대한 보다 상세한 사항은 주장환, “중국 사회주의론에 관한 연구: 발전단계론을 중심으로.” 『현대중국연구』 제26집 제2호, 2024, pp. 71~72.

후보로써 총통선거에서 승리한 것이다. 따라서 친중 보다는 반중, 통일보다는 독립을 선호하는 정책이 점차 강화되고 있다. 즉 이 대만의 이 시기 기득권연합인 민진당은 이 정책을 유지하는 것이 기회비용의 차원에서 자신들의 정권 유지와 재창출에 더 유리하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라이칭더는 총통 선거에서 양안관계에 대해 전쟁 준비를 포함한 국방력 강화를 통한 억지, 경제 안보 강화, 민주주의 국가 간의 파트너십 강화, 양안 해협의 현상 유지 등 다소 상호 모순된 주장을 했다. 동시에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묵인해오던 하나의 중국 원칙을 받아들인다는 이른바 92 공동인식에 대한 반대를 분명히 하면서 대만은 이미 독립 상태라고 밝히기도 했다.²⁹⁾

특히 민진당의 이런 입장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는 2022년 낸시 펠로시 당시 미국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과 그 이후의 대응이다. 당시 중국 인민해방군이 대만 상공을 통과하는 미사일을 발사하고, 양안해협의 중간선을 넘는 등 강력한 군사적 위협을 진행했다. 또 대만 농수산물 등 식품에 대한 수입 금지 조치를 취하기도 했다. 그러나 대만 정부는 군복무 기간 연장과 국방비 증액 그리고 수출입 다변화 정책을 추진하는 등 매우 적극적인 맞대응을 진행했다.³⁰⁾ 따라서 이를 근거로 했을 때, 대만의 중국에 대한 입장은, 냉전기와 유사하게, 구조 및 문화적 발현성의 측면에서 조건과 양립불가능, 상황논리는 제거와 선택 강요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이 시기 서로 구조 및 문화적 차원에서 기회주의/자유활동 그리고 제거/선택 강요 등으로 서로 다른 상황논리를 중국과 대만을 가지고 있다. 또 이를 선택하는 것이 각자의 기득권연합 즉 집권당들은 기회비용 차원에서 유리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과 대만은 종합 국력과 관계의 특수 상황 등의 협상지위와 행위 주체간 이념 및 인식의 일체성 등의 교섭 강도에 따라 상호 작용을 벌이고 있다. 물론 이 시기 중국과 대만은 협상 지위의 차원에서는 전자가 매우 우세하다.³¹⁾ 그러나 교섭 강도의 차원에서는 상황은 매우 다르다.

29) 표나리, “2024년 대만 선거와 동아시아 정세에 대한 함의.” 『국가안보와 전략』 제24권 제1호, 2024, pp. 37~50.

30) 지은주, “대만 2022: 펠로시 방문과 지방선거로 본 양안관계의 격동기.” 『아세아연구』 제66권 제1호, 2023, pp. 79~101.

31) 대표적인 예로 군사력을 측정하는 GFI(Global Firepower Index)의 순위는 중국이 3위, 대만이 24위이다. “2024 Military Strength Raking.” *Global Firepower*, <https://www>

즉 이전 시기에 비해 양 주체간의 관계에 대한 인식차가 더욱 커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근거는 중국은 대만의 현상 변경 시도 즉 대만 독립에 대해 무력 사용 가능성까지를 고려한 더욱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고, 반면 대만은 최근 10여 년간의 총통 선거 결과를 근거로 봤을 때, 더욱 대만 독립 지향의 인식이 확대되고 있다. 즉 대만의 현 집권당인 민진당의 국내정치적 기반은 이 방향과 정상관관계로 결합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³²⁾ 이런 상황에서는 2개의 시나리오가 존재할 수 있다. 이 2개의 시나리오는 모두 현상 변경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들이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이 두 행위주체간의 상호작용 과정에서 협상 지위 즉 구조적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압도적인 지위를 점한 중국이 채택한 유형 즉 기회주의로 수렴되는 경우이다.(<표 5> 참조)

<표 5> 탈-탈냉전기 양안관계발현적 속성, 상황논리, 상호작용 유형 그리고 행위전략(I)

발현적 속성/상황 논리		상호작용 유형	행위 전략
구조	문화		
필요/보호	양립가능/보호	방어적	보호
필요/타협	양립불가능/혼합수정	양보적	타협
조건/기회주의	양립가능/자유 활동	기회주의적	기회주의
조건/제거	양립불가능/선택 강요	경쟁적	배제

이 경우 양 행위주체의 행위전략은 공히 기회주의이다. 이 시나리오의 전제는 대만이 기존 입장 즉 ‘반 중국, 친 독립’노선의 일정한 후퇴 내지 선회이다. 이 전제 하에서 두 가지의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이 결과는 중국과 미국과의 관계, 더 구체적으로는 ‘거래’의 상황과 직결되어 있다. 특히 2025년부터의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외교전략 기조가 ‘거래적 고립주의(transactional isolationism)’라는 점에서 미국과 중국과의 거래의 가능성은 이전 바이든 행정

.globalfirepower.com/countries-listing.php(검색일: 2024.11.23).

32) 특히 라이칭더는 전 총통 차이잉원에 비해 이런 인식이 강하다고 평가되고 있다. 대만 전문가 인터뷰, 2024. 11. 15.

부보다 상대적으로 더 높다.³³⁾ 따라서 미국과 중국 간의 거래는 무역통상 분야 뿐만 아니라 소위 중국 측면에서의 ‘전략적 이익’과 ‘핵심 이익’간에도 이뤄질 수 있다. 여기서 전략적 이익은 북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 유지를 통한 완충지대 확보를, 핵심 이익은 대만과의 통일을 가리킨다.³⁴⁾ 이 경우 양안관계는 중국 주도로 통일의 방향으로 변화할 가능성이 있다. 동시에 중국이 대만 침공을 비롯한 군사적 옵션을 직접적으로 선택할 가능성을 낮아진다.

물론 중국과 미국 간의 거래가 실패하고, 반대로 대만과 미국 간의 주로 안보와 경제적 이익을 매개로 한 거래가 성공할 수도 있다. 이럴 경우 양안관계는 위의 경우보다 보다 현재 상태보다 다소 악화된 상태로 교착될 가능성이 있다. 이 가능성을 다소 억제할 수 있는 대만 측의 옵션은 이 시나리오의 전제 조건과 같이, 다소 반 중국, 친 독립 노선의 명시화를 자제하면서 새로운 통일이나 교류 확대 방안을 제시하는 것 등이다.³⁵⁾ 그러나 이 시나리오의 현실 가능성을 저하시키는 근본적인 요인으로는 중국이 2022년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 대만 방문과 2024년 라이칭더 민진당 후보의 총통 당선 이후 보이는 중국에 대한 공세적인 입장과 민진당의 전통적인 독립 추구 지향의 국내 정치적 기반 등을 들 수 있다.³⁶⁾

두 번째 시나리오는 이 두 행위주체간의 상호작용 과정에서 협상 지위의 상

33) 트럼프와 바이든 시기 미국의 전략과 관련한 보다 상세한 사항은 이선화·김중완 정한범, “트럼프 현상으로 본 미국 고립주의의 본질과 재현 가능성 전망.” 『한국정치외교사논총』 제38권 제1호, 2016, pp. 281~314; Feaver, D. P., “How Trump Will Change the World.” *Foreign Affairs*, November 6, 2024, <https://www.foreignaffairs.com/united-states/how-trump-will-change-world#>(검색일: 2024.11.10.); Hass, R., “How will Biden and Trump tackle trade with China.” *Brookings Institution*, April 4, 2024, <https://www.brookings.edu/articles/how-will-biden-and-trump-tackle-trade-with-china/>(검색일: 2024.11.10.). 등을 참조 바람.

34) “바이든 “中 대북영향력 사용해야” vs 시진핑 “핵심이익 위협 불허.” 『연합뉴스』 2024년 11월 7일, <https://www.yna.co.kr/view/AKR20241117016151071>(검색일: 2024년 11월 21일).

35) 새로운 통일 방안 제시의 의미는 대만이 중국의 통일 방안인 ‘일국양제’가 아닌 다른 통일 방안을 선제적으로 제시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대만 독립 허용과 동시에 국가연합 형성’ 등을 선제적으로 제시하고 이를 매개로 중국과의 협의를 진행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라는 주장이다. 대만 전문가 인터뷰, 2024. 11. 15.

36) Sun, Yun, “China’s View of Lai Ching-te and the Pending Crisis in the Taiwan Strait.” *China Leadership Monitor*, December 1, 2024, <https://www.prclleader.org/post/china-s-view-of-lai-ching-te-and-the-pending-crisis-in-the-taiwan-strait>(검색일: 2025.02.19.).

대적 압도적 우위에서도 불구하고, 문화적인 차원에서의 이질성의 차이 때문에 대만이 채택한 상호 작용 유형인 경쟁으로 귀결되는 경우이다.(〈표 6〉 참조)

〈표 6〉 탈-탈냉전기 양안관계 발현적 속성, 상황논리, 상호작용 유형 그리고 행위전략(II)

발현적 속성/상황 논리		상호작용 유형	행위 전략
구조	문화		
필요/보호	양립가능/보호	방어적	보호
필요/타협	양립불가능/혼합수정	양보적	타협
조건/기회주의	양립가능/자유 활동	기회주의적	기회주의
조건/제거	양립불가능/선택 강요	경쟁적	배제

이 경우 양 행위주체의 선호 행위전략은 상호 배제이다. 이 시나리오 역시 위의 시나리오와 같이 두 가지의 경우를 상정할 수 있다. 미국과 중국 간의 거래가 성사되는 경우와 이 거래는 실패하고 미국과 대만간의 거래가 성사되는 경우이다. 주로 대만의 안보 이익과 미국의 경제 이익이 교환되는 것을 의미한다.³⁷⁾ 그러나 이 두 경우 모두 양안관계의 현상 변경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더욱 높아진다. 특히 시기적으로 2027년에는 중국의 시진핑이, 2028년에는 대만의 라이칭더가 모두 재집권을 시도하는 해이기에 중단기적으로 더욱 그러하다. 다만 전자가 후자에 비해 중국의 무력 사용 가능성이 낮아진다는 차이가 있다. 한편 전자의 경우, 중국에게 있어서 전략적 이익과 핵심 이익은 그 경중을 따지기 힘든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 큰 난제이다. 또 후자의 경우 대만은 중국에 비해 소위 거래할 수 있는 자원(resource)가 상대적으로 희박하다는 점이 실현 가능성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된다.

37) 이 경우 대만이 미국에 대해 거래의 조건으로 제시할 수 있는 것은 미국산 무기 구매의 확대, 대표적인 반도체 생산기업인 TSMC의 미국 투자 확대 등이 유력한 것으로 제기된다. 대만 전문가 인터뷰, 2024. 11. 22.

V. 결론

이 글은 트럼프 2기 정부의 시작 시점에서, 탈-탈냉전기 중국과 대만 관계의 변화에 대해 탐구하고 있다. 미래에 대한 예측이 아니라 과거 현상에 대한 설명의 축적을 통해 그 동학을 규명하고, 미래의 결과는 특히 행위자의 선택에 따라 가변적일 수 있다는 ‘열린 접근’을 통해 이 문제를 분석한다. 분석틀은 과학철학의 한 조류인 비판적 실재론에 근거한 형태발생론을 국제관계에 대해 적용한 ‘동태적 양국관계 변화 분석모델’을 활용했다. 이 글은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한 2025년 현재 시점은 냉전기, 탈 냉전기와 구별되는 탈-탈냉전기에 속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냉전기와 탈 냉전기의 양안관계를 이 분석틀을 활용하여 양안관계 변화 메커니즘을 분석했다. 다음으로 이 기반 위에서 탈-탈 냉전기 양안관계에 이 분석틀을 적용한 후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있다.

연구 결과, 냉전기의 양안관계는 중국과 대만 모두 구조 및 문화적으로 발현적 속성은 조건적이며 양립불가능하며 이에 대응한 제거와 선택강요를 상황 논리를 수용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들 간의 상호작용은 상호 경쟁적이고, 이에 대응되게 상호 배제적 행위전략을 채택하게 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 탈 냉전기는 중국과 대만 모두 구조 및 문화적으로 발현적 속성은 필요적이며 양립불가능하며 이에 대응한 타협과 혼합수정의 상황 논리를 수용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들 간의 상호작용은 상호 양보적이고, 이에 대응되게 상호 타협적 행위전략을 채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탈-탈 냉전기의 외생적 조건은 구조 및 문화적 발현성은 조건적이며 양립가능적이며, 역시 같은 차원에서 기회주의와 자유 활동을 특성으로 하는 상황 논리의 특성을 가진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냉전기 및 탈 냉전기와 다르게, 이 시기 내생적 조건의 양 주체는 서로 다른 구조 및 문화적 차원에서 상이한 발현적 속성과 상황 논리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즉 중국은 외생적 조건의 특성과 유사한 기회주의와 자유 활동적 상호 작용 유형을, 반면 대만은 냉전기와 유사한 경쟁적 상호작용 유형을 나타냈다. 따라서 이 시기 양안관계의 시나리오는 상호작용의 결과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설정될 수 있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이 두 행위주체간의 상호작용 과정에서 협상 지위 즉 구조적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압도적인 지위를 점한 중국이 채택한 유형 즉 기회주의로 수렴되는 경우이다. 이 경우 물론 중간에 미국과 중국

간의 거래의 결과에 따라 그 결과는 상이할 수 있지만, 전반적으로 양안간의 무력을 동반한 급격한 현상 변경의 가능성은 낮아진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이 두 행위주체간의 상호작용 과정에서 협상 지위의 상대적 압도적 우위에서도 불구하고, 문화적인 차원에서의 이질성의 차이 때문에 대만이 채택한 상호 작용 유형인 경쟁으로 귀결되는 경우이다. 이 경우 양 행위주체의 선호 행위전략은 상호 배제이다. 그 결과는 역시 중국과 대만이 모두 미국과의 거래 상황에 따라 역시 달라질 수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무력을 동반한 양안간 현상 변경의 가능성은 매우 높아진다. 물론 이 시나리오들의 현실화는 각 행위주체들의 선택에 상당 부분 달려있다.

한편 이 같은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은 학술 및 정책적 함의를 가진다. 동시에 이에 기반한 향후 연구의 과제들이 도출된다. 먼저 학술적으로 '열린 접근'을 통한 국제관계 변화에 대한 분석의 가능성과 적실성이 일정하게 검증되었다. 즉 과거의 현상에 대한 분석에 근거한 설명 그리고 이에 기반한 미래 전망에 대한 시나리오 제시라는 방식이 양안관계 변화에 대한 분석에 적용됐다는 것이다. 물론 연구 과정에서 노정된 동태적 양국관계 분석모델에 대한 일정한 수정과 보완은 불가피하다. 특히 상호작용의 차원에서 구체적으로 협상지위와 교섭강도를 어떤 범주에서 또 어떻게 측정할 것인지 등에 대한 부분이 그러하다. 잠정적으로 이 글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내생적 조건이 상이한 두 개의 행위주체들의 사례를 통시적으로 비교 분석하는 것을 통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동시에 양국관계가 아닌 복수 국가간 관계에 대한 보다 고차원적인 사례 연구의 축적을 통해 이 접근에 대한 적실성을 검증하고, 보다 정교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정책적으로 이 글은 이해 당사자인 중국과 대만이 선택할 수 있는 옵션과 그 결과에 대한 논리적인 분석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각각의 행위 주체는 이를 참고하여 보다 자기 이익 증진적인 실천을 조직할 수 있다. 동시에 이해 상관자인 다른 세계의 여러 국가들도 각자의 이익에 근거한 시나리오의 실현을 위해 노력할 수 있는 논리적 근거를 제시한다. 특히 기회주의가 주요한 상호작용과 행위전략의 유형인 것으로 분석되는 탈-탈 냉전기에는 그 정책적 가치가 높다고 사료된다. 그러나 이해 상관자 국가들과의 관계를 동시에 분석할 때 발생하는 논리와 경우의 수의 복잡성을 제어하는 작업은 향후 연구에서 경험적

으로 해결되어야 할 과제 중의 하나일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이 탈-탈냉전기내의 소시기 예를 들면 각 이해 상관자 국가의 개별 최고 지도자 집권 시기에 대한 비교를 진행하는 것도 이 분석들의 발전에 있어서 매우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로 사료된다.

마지막으로 특정 이슈에 대한 정책적 차원에서의 시뮬레이션(모의실험) 진행 과정에서 이 접근은 시나리오 제시 과정에서 매우 유력한 하나의 논리적 틀을 제시한다는 측면에서도 의의가 있다. 따라서 향후 양안관계 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한반도의 남북관계 등 이슈에 대한 연구로 그 사례를 확장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공민석, “트럼프의 이단성과 바이든의 정상성?: 대중 전략의 연속성과 단절에 대한 평가.” 『국가안보와 전략』 제22권 제1호, 2022.
- 김민혁, “개념의 의미 지평에 대한 다원적 접근법.” 『개념과 소통』 제33호, 2024.
- 김옥준, “마오쩌둥 시기의 통일 정책: ‘하나의 중국’ 원칙 확립과 정책 변화.” 『사회과학연구』 제21권 제4호, 2010.
- 김웅진, “사회과학적 일반화에 있어서 연구사례의 일탈성.” 『21세기 정치학회보』 제26집 제4호, 2023.
- _____, “사회과학적 일반화에 있어서 연구사례의 일탈성.” 『21세기 정치학회보』 제26집 제4호, 2023.
- 김예경, “트럼프 2기 미-중 전략경쟁 전망과 한국의 대중국 정책 방향.” 『이슈와 논점』 제2303호, 2024.
- 류동원, “21세기 미중 경쟁에 대한 신냉전 논쟁과 쟁점 연구.” 『중국지역연구』 제9권 제2호, 2022.
- 문홍호, “대만문제와 양안관계의 대내외적 환경: 변화와 지속.” 『동아연구』 제53집, 2007.
- 박영준, “국제안보질서의 동요와 한미일 안보협력의 방향.” 『국가전략』 제30권 제3호, 2024.
- 반길주, “냉전과 신냉전 역학비교: 미중 패권경쟁의 내재적 역학에 대한 고찰을 중심으로.” 『국가안보와 전략』 제21권 제1호, 2021.
- 신종호, “시진핑 3기 중국 대외정책의 지속과 변화: ‘중국특색 대국외교’를 중심으로.” 『중국사회과학논총』 제6권 제2호, 2024.
- 쉬진위, “양안은 화해할 수 있을까?: 중국몽과 대만 발전의 갈등과 대화.” 『역사비평』 제114호, 2016.
- 이기홍, “비판적 실재론이 상기시키는 사회과학의 가능성.” 『담론 21』 제24권 1호, 2021.
- 이선희 외, “트럼프 현상으로 본 미국 고립주의의 본질과 재현 가능성 전망.” 『한국정치외교사논총』 제38권 제1호, 2016.
- 이호재, “21세기 동북아 국제질서와 새로운 세력균형의 모색-동북아 5개국 체제.” 『국제정치논총』 제39권 제3호, 2005.
- 장시영 · 남궁영, “도전받는 미국의 헤게모니: 중-러의 도전과 진영형성에 따른 신냉전 가능성.” 『세계지역연구논총』 제41권 제1호, 2023.

- 제성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의미와 한반도: 세계질서, 안보딜레마, 정체성.” 『국제지역연구』 제38권 제4호, 2023.
- 차태서, “탈단극적 계기로의 진입? 포스트-우크라이나 전쟁 시대 세계질서의 대전환 읽기.” 『국제·지역연구』 제32권 제1호, 2023.
- 주장환 외, 『동북아안보구조의 변화와 중국-한반도 관계: 시나리오 분석 및 한국의 대응 방안』,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8.
- 주장환 · 신지연, “중국 포스트 개혁개방 정책의 이론적 기초: 경제내순환론을 중심으로.” 『국제지역연구』 제25권 제1호, 2021.
- 주장환, “북중관계 동화에 관한 연구: ‘구조’와 ‘행위’의 이중주인가 독주인가?.” 『국가안보와 전략』 제22권 제3호, 2022.
- _____, “중국 사회주의론에 관한 연구: 발전단계론을 중심으로.” 『현대중국연구』 제26집 제2호, 2024.
- 지은주, “대만 2022: 펠로시 방문과 지방선거로 본 양안관계의 격동기.” 『아세아연구』 제66권 제1호, 2023.
- 최우선, “트럼프 2기 미중관계 전망: 경제안보를 중심으로.” 『주요국제문제분석』 2024-46, 2025.
- 표나리, “2024년 대만 선거와 동아시아 정세에 대한 함의.” 『국가안보와 전략』 제24권 제1호, 2024.
- “바이든 ‘中 대북영향력 사용해야’ vs 시진핑 ‘핵심이익 위협 불허’.” 『연합뉴스』 2024년 11월 7일, <https://www.yna.co.kr/view/AKR20241117016151071>(검색일: 2024년 11월 21일).
- “악몽이 된 중국몽... 중 경제력, 미 추월은 커녕 더 벌어졌다.” 『조선일보』 2024년 01월 27일, https://www.chosun.com/economy/economy_general/2024/01/27/OIT4VE65NNGQBGEYBWADM2YX5E/(검색일: 2024년 11월 7일).
- Archer, M., *Realist Social Theory: The Morphogenetic Approach*,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5.
- Bhaskar, R., *A Realist Theory of Science*, London: Verso, 1997.
- _____, *The Possibility of Naturalism*, London: Routledge, 1998.
- _____, *Enlightened Common Sense: The Philosophy of Critical Realism*, London: Routledge, 2016.
- _____, *The Order of Natural Necessity: A Kind of Introduction to Critical Realism*, London: Routledge, 2017.

- Carter, B. and C. New, *Making Realism Work, Realist Social Theory and Empirical Research*, London: Routledge, 2004.
- Casado, J. A. R., "Trump 2.0 and the Future of the Taiwan Strait Conflict." *The Diplomat*, November 18, 2024, <https://thediplomat.com/2024/11/trumps-return-and-the-future-of-the-taiwan-strait-conflict/>(검색일: 2024.02.11.).
- Davis, B., *Superpower Showdown: How the Battle Between Trump and Xi Threatens a New Cold War*, New York: Harper Business, 2020.
- Feaver, D. P., "How Trump Will Change the World." *Foreign Affairs*, November 6, 2024, <https://www.foreignaffairs.com/united-states/how-trump-will-change-world#>(검색일: 2024.11.10.).
- Hass, R., "How will Biden and Trump tackle trade with China." *Brookings Institution*, April 4, 2024, <https://www.brookings.edu/articles/how-will-biden-and-trump-tackle-trade-with-china/> (검색일: 2024.11.10.).
- Khrestin, I., "The Russo-Ukrainian War: Implications for Taiwan." *Global Taiwan Brief*, Vol 8, Issue 13, June 28 2023, <https://globaltaiwan.org/2023/06/taiwanese-perspectives-on-the-russian-invasion-of-ukraine-and-its-implications/>(검색일: 2024.02.11.).
- Sun, Yun, "China's View of Lai Ching-te and the Pending Crisis in the Taiwan Strait." *China Leadership Monitor*, December 1, 2024, <https://www.prclleader.org/post/china-s-view-of-lai-ching-te-and-the-pending-crisis-in-the-taiwan-strait>(검색일: 2025.02.19.).
- Tsui, S., Erebus Wong et al., "Toward Delinking: An Alternative Chinese Path Amid the New Cold War." *An Independent Socialist Magazine*, Vol. 72, No. 5, 2020.
- Westad, D. A., "A Multipolar World Order: U.S.-China Relations Under a Second Trump Administration." *Georgetown Journal of International Affairs*, February 3, 2025, <https://gja.georgetown.edu/2025/02/03/a-multipolar-world-order-u-s-china-relations-under-a-second-trump-administration/>(검색일: 2025.02.19.).
- White House, *National Security Strategy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Washongton D.C.: White House, 2017.

O'Keefe, M., "The Militarization of China in the Pacific." *Security Challenges*, Vol. 16, No. 1, 2020.

"2020 Democratic Party Platform." *The Democratic Party*, August 17, 2020, https://ballotpedia.org/The_Democratic_Party_Platform,_2020(검색일: 2024.02.11.).

"2024 Military Strength Raking." *Global Firepower*, <https://www.globalfirepower.com/countries-listing.php>(검색일: 2024.11.23.).

"How to survive a superpower split." *Economist*, 2023년 4월 11일, <https://www.economist.com/international/2023/04/11/how-to-survive-a-superpower-split>(검색일: 2024.11.07.).

Abstract

A Study on Changes in Cross-Strait Relations in the Post-Post-Cold War Era: An 'Open Conclusion' Approach

Jang Hwan Joo(Professor, Hanshin University/
Director, Eurasia Institute)

This article analyzes the changes in relations between China and Taiwan in the post-post-cold war era, at the beginning of the second term of the Trump administration in 2025. This article analyzes the changes in relations between China and Taiwan in the post-Cold War era, starting in 2025, when the second term of the Trump administration begins. It attempts to analyze this issue through an open approach and a dynamic analysis model of changes in bilateral relations. As a result of the study, the international order during this period was analyzed to have the characteristics of situational logic characterized by opportunism and free activity in terms of structural and cultural manifestations, which were conditional and compatible, and also in the same dimension. In addition, the two subjects of the endogenous conditions during this period were found to have different manifestation properties and situational logics in different structural and cultural dimensions. That is, China showed opportunism and free activity interaction types, while Taiwan showed a competitive interaction type similar to the Cold War. Accordingly, the scenarios of cross-strait relations during this period can be largely set into two types depending on the results of the interaction.

Keywords: The Post-Post-Cold War Era, Cross-Strait Relations, Change, Open Result Approach, Dynamic Bilateral Relations Change Analysis Model

투고일: 2024년 12월 30일, 심사일: 2025년 2월 4일, 게재확정일: 2025년 2월 23일